

反大學性的 놀이文化

— 週期성을 상실한 集團示威의 祝祭 —

李 相 日

(成均館大 獨語獨文學科)

I. 놀이문화와 大學

대학을 추상화시켜서 대학의 보편성에 반대되는 경향들을 일러 反大學性이라는 표현으로 규정짓는다면 놀이문화는 바로 反大學性的의 典型이 될 것이다. 대학문화에 놀이문화는 존립할 수 없다. 그것은 대학에 金錢貸借 같은 세속적인 거래가 있을 수 없고 浪漫은 있되 세속적인 정념이 깃들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놀이문화가 대학의 필수요건처럼 오인되고 특히 축제는 대학문화의 중요한 핵심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 거듭 강조하거니와 대학에는 놀이문화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當爲性이다.

당위성(Sollen)은 하나의 규범이므로 난파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규범의 난파는 非常事態이다. 비상사태에서는 잠정적으로 정상질서가 유보당한 채 비상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 이 비상체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잠정적 질서이기 때문에 이 비상질서는 결국 당위성의 질서로 돌아 가야 한다.

대학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대학의 「본질에 입각해 보면 當爲性的의 秩序가 자리잡지 못했을 때 비상질서 내지는 비상체제의 일시적 잠정적 질

서로서 놀이文化나 축제가 끼어들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대학의 본질에서 논의된 문화가 아니다.

당위성의 대학문화는 놀이문화 내지는 축제를 배격한다. 대학은 知性的의 터전이며 지성은 놀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의 역사로 보았을 때 그 성립이 왕권이나 신성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고 그 체제는 세속의 배제에 있었으므로, 근대 대학이 人文·社會·自然科學으로 그 이념과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대학이 본질상 그 反世俗性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대학의 속성 때문이었다. 대학의 반세속성이 바로 놀이문화에 대한 反大學性的의 근거가 된다.

II. '60~70년대의 大學놀이 : 民俗劇의 도입

상아탑의 대학이라거나 대학의 반세속성 같은 문구는 이제 완전히 진부한 것이 되었다. 그만큼 대학이 그 고고함을 자랑하던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이다.

해방이 되고 6·25사변을 겪고 그 와중에서 그때도 어느 정도 時流에서 초연했던 대학은 4·19 학생의 거의 결정적 시기에 “학생들의 피에 보상하라”는 슬로건을 내건 대학교수 데모대의 거리

진출과 더불어 社會參與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世俗化시대의 문을 연다. 사회참여와 세속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세속화는 그대로 놀이와 축제의 광장을 대학 안에 마련하기에 이른다.

4·19가 자유당 독재에 대한 民權의 승리로 구가되면서 4·19는 민주화의 축제가 되고 그 축제는 대학의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행위의 상징이 됨으로써 대학에 있어서의 놀이문화와 축제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기에 이르렀으며 자유와 민주주의와 반독재의 마지막 보루로 대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놀이와 축제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다분히 서구지향적이었던 초창기 — 1950년대 및 '60년대 초기—의 대학가에서 배풀어진 소위 축제와 놀이행사는 어설픈 亞流의 쌍쌍파티 같은 것으로 학예회 같은, 연극제나 운동회 같은 것이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의 세속화는 그만큼 대학의 고답성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이며 대학의 정치·사회적 공약도 낭만적이라 할 만큼 치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참여와 세속화도 전근대적이었으며 그만큼 놀이문화나 축제의 반대학성도 문제될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5·16 이후 대학의 사회참여가 심화될수록 대학의 세속화가 가속되고 그와 병행해서 대학의 놀이문화와 축제행사도 성행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이 지닌 놀이문화의 특이성은 그것이 세속성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속적 질서에 대한 반질서, 반체제의 경향을 띠는 사실이다.

'60~70년대의 제3공화국에서 대학 교수들의 사회참여가 정부·정당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반면 종교·사회측면에서 비판적 세력으로서 지식인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대학의 세속화가 가속되었을 때, 대학문화로서 놀이와 축제는 서구취향에서 전통문화지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정부·정당 선도의 '근대화'가 바로 서구지향적인 데서 오는 생리적 반발일 수도 있었고, 동시에 역설적으로는 제3공화국의 정부·

정당이 근대화 작업의 이면 작업으로 추진한 國粹主義的 復古主義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의외의 열매이기도 했던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면 근대화 이념과 새마을운동 그리고 현대적 관료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시되고 천대되고 파괴되는 과거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가치체계에 대해서 가장 서구지향의 대학들이 반세속성의 속성 때문에 의식의 시선을 던진 것이다.

대학의 대학적 본질, 그 반세속성이 시류로 흐르는 세속의 물줄기인 근대화작업에 회의의 눈을 들리며 전통문화의 가치에 點檢의 척도를 대면서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反大學性의 표본이 될 수도 있는 놀이演戲와 鄉土祝祭였다는 사실은 아주 시사적이다.

대학의 사회참여가 정책자문이나 대학 지식인의 黨僚化로 유도되던 '60~70년대에는 놀이 연희의 축제가 傳統文化라는 축을 중심으로 체제쪽에서나 반체제쪽에서 다 같이 이념화되어 나갔다. 대학의 놀이성향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급진적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음에 착안하여 체제쪽의 민족주의도 전통문화의 정책적 수렴으로 민족문화의 아이덴티티 탐구와 회복으로, 혹은 극적 있는 교육이라거나 주체의식 고취로 오히려 대학가의 반세속적 이념을 국가적 차원에서 세속화시킨다.

그리하여 대학사회에 있어서의 전통문화 운동과 정부·정당차원의 전통문화 운동이 서로 다른 온·냉선의 기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문화 이데올로기는 대학가에서 민중 이데올로기의 싹을 키우게 되고 정부·정당차원에서는 역사의 이데올로기화 및 미화작업이 되어 성격개발과 향토축제 개발 형식이 된다.

대학이 '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무의식적으로 추진한 민중이데올로기화 작업은 놀이와 축제에 민속행사를 편입하는 것이었다. 주로 탈춤·민속가면극으로 일컬어지는 이 놀이형태는 전통사회의 민중적 연희형식으로 회상되었으며 그 탈춤·민속가면극이 지닌 미분화의 종합예술 형식 가운데 침잠되어 있는 共同體意識과 民族肖像이 '두레'적 大同놀이의 集團化에 힘입어 역사성과 사회성으로 환원되어 특권층에 대한 비판과

종자로 해석됨으로써 전통적 민중연회의 패러디化는 그대로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라는 실험성·전위성을 띠기도 하였다.

대학의 놀이바람이 정부·사회문화단체로 불어간 것은 전통문화의 수용과 전개가 주르 역사적인 때만 치중되어 있던 보수적 시각과 분위기 아래서는 놀라운 변모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놀이·연희와 축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우리 사회의 성숙에 이바지했다.

'60~70년대 대학의 놀이문화는 가장 반대학적이면서 시류를 거역하는 반체제적 행사로서, 가장 세속적인 전통적 민속놀이를 수용하였다. '80년대 중반에서 보면 심검기조차 한 가면극이 '60~70년대에는 반체제운동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은 수용 자세의 차이에서 온다. 民衆劇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전통극이라는 이름으로 급기야 마당劇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한 민속놀이는 그것이 민속가면극이었을 때는 놀이가 아니라 진지한 정치적·사회적 행위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것이 '60~70년대 대학놀이문화의 政治史이며 社會史이다.

Ⅲ. 大學놀이의 다양화 : '80년대의 정치의식

대학의 세속화가 대학의 사회참여에서 가속화되고 그 사회참여가 사회표면적으로 정치주도 세력에 의한 정책 및 관료제도로 수렴됨에 따라 대학의 반체제성을 표방한 일부 세력은 전통문화의 놀이행사와 축제형식으로 양지와 음지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정치·사회표면에 드러난 이데올로기로서의 전통문화와 대학의 이념으로 잠재된 전통문화가 놀이와 축제를 놓고 상충하기 시작한 것이 '70~80년대의 특징이다.

反大學性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놀이와 축제가 대학 안에서 가장 대학다운 풍습으로 자리잡고 놀이와 축제라는 가장 세속적인 연희형식이 반정부적 반체제적인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傳承演戲의 뜻하지 않은 변용이었다.

말하자면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내용에 붙인, 표현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造化인 것이다. 탈춤이나 농악이나

민요나 민화 등은 그대로의 양식과 내용을 지닌 것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척도, 즉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그 내용이 지녔던 세계가 전혀 달라져 버린다.

전통연희로서의 놀이와 축제가 그렇게 그 의미 내용을 바꾸게 되어 단순한 전래의 탈춤이 비판과 풍자와 저항정신을 담은 그릇으로 해석되고, 널리 불려졌던 민요가 특히 勞動謠의 경우에는 킁박맞는 근로자의 사상으로 격상되는—이른바 놀이와 축제의 이데올로기化는 정치의식의 발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70~80년대의 대학의 놀이문화는 대학의 사회참여를 잠재적으로 유도하는 운동권 내지는 정치집단의 수단이 되고 그만큼 이념의 표현 수단, 의식화 작업, 그리고 바로 대학의 정치성향을 대변하게 된다.

대학의 정치성향은 사회참여의 결과이며 그 사회참여가 놀이와 축제의 표현으로 드러남으로써 대학의 세속화는 절정에 달한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대학에 놀이와 축제가 必要惡으로 정착됨으로써 대학은 가장 반대학성을 노출시키게 되고 그만큼 대학 본질로 보아서는 反大學的 非常體制의 秩序에 얽매이게 된 것이다.

놀이와 축제의 이름으로 대학의 정치성향이 구호화될 때 그 놀이 성향의 다양성은 놀이의 무목적성이라든가 자기몰입, 도취·열광 등으로 카타르시스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의 다양성 자체가 목적 추구의 多樣性을 企圖하는 의식적 작업이 된다.

그리하여 축제의 이름으로 배풀어진 놀이의 마당에는 단순한 전승연희 양식만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장르가 활용되고 즉흥적으로 꾸며지고 현장에서 '현대적으로' 놀아지면서 잠재된 활력과 함께 의도적인 政治意識이 代入되는 것이다.

우리는 '70~80년대의 대학 놀이문화에서 그렇게 변질되는 놀이의 다양한 모습들을 목도하였다. 그것은 마당극에서 그랬고 노래마당에서 그랬으며 민중화 전시에서 그랬고 마침내 해방춤이라는 춤시위에서, 민요에서, 굿거리에서, 신화전설에서조차 그러하였다.

놀이의 요소들이 모두 이데올로기의 표현 수단

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의 놀이문화는 놀이와 축제의 근원적 의미마저 상실한 채 정치·사회화했거나 이데올로기화하였고 그런 면에서 보면 놀이나 축제의 본연의 자세에서조차 벗어나 버렸다.

놀이는 원래 그 자체가 자기 완성의 세계이며 그 자체로 완결된다는 의미에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세계이다.

우리의 일체의 일상적 목적들은 궁극적 목적을 향해 건축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직무상의 여러 특수목적들은 우리가 최종목적(Endzweck)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향해 줄지어 선다. 이러한 여러 목적의 구조 가운데서 우리의 일과 진지한 삶이 영위된다.

그러나 무엇이 최종·궁극목적이며 삶의 사명이요 진정한 행복이나를 말할 때는 언어의 혼란이 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 때문에 계획적인 인생의 양식 가운데서 불안이나 조급함이 따르게 마련이고 불확실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놀이의 철학을 지향하는 핑크(E. Fink) 교수에 의하지 않더라도 ‘놀이’행위는 다른 행위와 달라서 계획적인 인생의 양식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놀이는 모든 미래지향적인 삶의 양상과 뚜렷이 데조를 이루며 삶의 여러 목적이라는 건축구조에 끼어들어 있지도 않다. 그것은 궁극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도 아니며 다른 행위처럼 행복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스러워지거나 방해받지도 않는다.

핑크 교수의 정의에 의하면 놀이의 성격은 인생행로와 그 불안한 다이내믹즘, 어둠의 불확실성, 끊임없는 미래에의 지시와 같은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안락한 현재와 자족적인 뜻을 지닌다고 한다. 그의 유명한 명제는 놀이란 ‘행복의 오아시스’라는 것이다.

“뚜렷한, 자기완결적 의미에서의 놀이행위의 순수한 자기만족이야말로 놀이라는 시간속에서의 인간적 휴식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놀이는 우리를 끄신다(entführt). 놀게 됨으로

써 우리는 잠시 삶의 중동에서 해방된다. 삶의 중동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삶의 계획성과 목적 추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대학은 삶의 계획성을 견고히 하며 삶의 목적 추구를 위한 도장인 것이다. 오성과 지성은 지식의 함양을 통해 삶의 최종목적설정을 한다.

그런 점으로 보면 놀이의 무목적성을 강조하는 대학의 놀이문화는 대학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임이 확실하다.

우리의 논리를 보다 구체화시키면 대학의 놀이문화가 대학문화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으로 확립된 한국 대학의 특성은 본질적인 대학 성립의 조건에 역행하는 것임이 밝혀진다. 따라서 대학의 놀이문화가 거론되는 마당에는 대학의 비상태세, 반질서의 질서가 당연한 질서로 횡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우려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질서와 빛에 대한 반질서와 어둠의 틈입을 의미한다. 대학이라는 최고의 지성과 학문적 체계와 고도의 질서는 빛의 행렬이다. 그리고 그 질서와 빛에 대한 도전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류의 발전상이라 한다면 대학에 있어서 놀이와 축제의 성행은 반지성과 카오스와 태초의 어둠을 향한 일종의 문화적 퇴영현상, 아니던 회귀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IV. 만발하는 놀이와 축제 : 週期性的 상실

놀이행사와 축제는 그것이 집단적일 때 이른바 문화인류학적 오지(orgy)현상을 통해 질서에서 이탈하는 창조적 카오스 상태에의 귀의를 빚어 낸다.

빛으로 상징되는 질서의 중앙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반질서나 혼돈 혹은 어둠은 해방이자 자유이고 창조적 카오스라고 불려진다. 놀이와 축제가 그 길을 밝히는 햇불인 것이다.

따라서 놀이의 장난스러움에 대비되는 진지함의 일상적 세속적 질서에 눌러 살다 보면 그 끝에 놀이와 축제의 해방과 휴식은 구원이 된다.

일과 놀이는 진지함과 신성스런 곳과 상관하여 ‘진지한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세속적 질서 속에 함몰한 삶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곳의

제의가 있고 그 신성회복을 위한 놀이의 난장판이 태초에 빛을 있게 한 근원적 어둠의 신화세계로 우리를 데려가 준다는——그러한 순환 논리가 고된 일과와 굶의 제의와 놀이의 일관체제로 묶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일과 놀이의 상관관계 내지는 신성과 세속의 표리관계를 망각하며 살고 있다. 망각하는 그만큼 대학사회의 지성적 성숙도는 좁아지는 것이다.

대학의 지성은 고도의 지식축적과 과학적 방법론의 연마 및 정신적 수련과 인격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진지한 일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대학의 지성은 그러한 '진지한 일'의 부단한 완수를 향한 가장 합목적적 최종목적 설정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 목적을 향한 일사불란성 내지 외고집 성향이 대학의 가장 대학다운 본질이 될 수 있고 그런 성향이 바로 반세속성으로 일컬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반세속성의 대학을 세속적 사회참여의 와중으로 끌어낸 오늘날의 시대·사회상황은 어쩔 수 없이 대학의 놀이문화라는 反大學性의 구성요소를 자체적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반대학적인 현상인 놀이와 축제를 대학 안으로 불러들인 것은 시대상황이었으며, 그 시대상황의 부조리가 가장 부조리한 대학의 놀이문화를 만들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놀이문화가 놀이문화로서 개성이나 성격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사회상의 반영인 것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와 전공에 대한 미화이자 동시에 이른바 민중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치·사회풍자의 합목적성을 지니게 된 놀이와 축제는 놀이나 축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다.

놀이나 축제의 탈세속적 기능——근원적 카오스에의 회귀를 통한 活性化의 再充電이라는 신화세계에의 접근은 진지한 일의 세계에서 주기적으로 배풀어졌던 축제의 기능이 결코 단순한 기능으로 끝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일정한 때도 없이 만발하는 놀이와 축제는 시간을 잡아 먹고 어느 때든지 노는 그 때가 바로 축제의 시간이 된다.

그것은 놀이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다. 대학의 놀이문화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축제의 놀이는 진지한 일의 경과가 있고 난 다음 일년의 어느 시기, 혹은 계절의 고비 등 일정한 週期性을 가지고 회귀하여 배풀어졌다. 그것은 탈진한 활력의 재충전이어서야 했다.

그러므로 활력의 재충전이 아니라 활력의 계속적인 방출에 불과한 대학의 만발한 놀이행사와 축제는 만들어진 假花의 놀이와 축제이다. 대학의 놀이문화가 바로 만들어진, 생명 없는 놀이와 축제에 불과한 까닭은 주기성을 잃고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라 대학의 놀이와 축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성행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80년대 대학문화의 하나로 특징지어지는 놀이와 축제의 두드러진 경향이다.

봄, 가을의 대학축제는 이제 놀이화하고 축제화한 집단시위의 선행행사로써 구호와 합창과 농악과 마당극을 배설하고 만화 전시와 판화 포스터 전시로 무대를 꾸민다. '민중문화'의 이름으로 극화되고 구성되는 놀이와 축제는 전통 연회와 예능과 구비전승을 활용, 만발하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결집된 집단시위를 놀이화하고 축제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학의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비양거림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대학의 놀이문화 자체가 대학의 본질에 입각해 보면 비하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오히려 놀이문화의 세속성에 대한 경고와 고발은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다.

일년에 한번쯤 대학의 유래를 위하여 그 연원의 이념으로 회귀하기 위하여, 마침내 대학이라는 '진지한 일'의 역사에 쇠진한 활력의 회복을 위하여 놀이와 축제의 휴식을 마다할 수 없는 우리는 때도 자리도 없이 배풀어지는 축제의 놀이에 이제 어찌던 지켜 있는 것인지 모른다. *